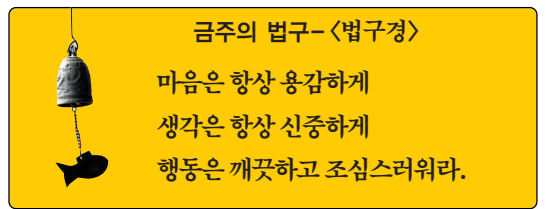


마하무량사 주지 암도 스님
“유바라밀 수행은
고해 건너는 방편”
8면

현대불교

창간 20년
2014



금주의 법구-〈법구경〉

마음은 항상 온감하게
생각은 항상 신중하게
행동은 깨끗하고 조심스러워라.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2월 19일) · 주간

제984호 2014년 3월 19일 수요일

“불교 지적재산권 보호, 동참해주세요”

조계종, 관련 대응 매뉴얼 제작...보호 사업 시행

#2010년 주요 방송사가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사찰에 촬영 협조를 요청했다. 프로그램의 의도가 좋아 사찰은 적극적으로 촬영을 도왔고 심지어는 촬영 수수료도 받지 않았다. 방송이 되고 난 후 사찰은 자체 홍보를 위해 관련 영상을 제공받기를 원했으나 방송사 측은 저작권료를 요구했다. 결국 사찰은 프로그램 영상을 사용할 수 없었다.

#수도권 한 사찰에서 TV 인기 드라마 촬영 제안이 들어왔고, 사찰은 흔쾌히 허락했다. 촬영팀은 사찰 법당 옆에 임시벽을 설치했고, 촬영을 마무리하고 나서는 이를 철거했다. 하지만 제작진들이 돌아가고 난 후 법당 외벽에 적지 않는 손상이 있던 것을 발견했다. 결국 사찰은 많은 비용을 들여 외벽을 보수했다.

문화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현대사회에서 귀중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다. 불교 역시 전국 사찰과 성보문화재, 무형문화재 등 다양한 문화 유형 콘텐츠가 산존하고 있다. 이들 불교문화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문화 예술 분야의 작품처럼 사람의 사상,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며, 등록하지 않아도 보호받을 수 있다.

불교의 경우 종단과 사찰, 스님 또는 관계인들이 만들었거나 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지적재산의 권리를 불교문화지적재산권으로 정의할 수 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분류하자면 불상, 탱화, 탑, 단청 등 불교미술과 설화부터 불교음악, 수행, 템플스테이 등도 지적재산권으로 포함된다.

문제는 불교계에 형성된 지적재산권이 원형 콘텐츠의 형태로 존재하는 데 있다. 사찰에서 아이디어와 소재, 비용을 제공해도 저작권과 지적재산권은 창작한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의주를 통해 2차 창작물을 만들 경우 작품에 대한 권리가 사찰에 있음을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조계종도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1년 불교문화진흥법을 제정·공포했으며, 지난해에

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매뉴얼과 상황별 종단 표준 계약서도 만들었다.

특히 조계종 문화부가 발간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매뉴얼’은 일반 사찰에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자료이다. 매뉴얼에는 지적재산권 정의부터 △단계별, 매체별 주의점 △표준계약서 양식까지 정리돼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의 경우 제공한 사찰 정보가 제대로 소개되고 있는 지를 모니터링해야 하며, 방송과 영화는 방송 종료 후 가장 좋은 품질의 영상을 제공받고 미방영 및 제작중단이 되더라도 해당 사찰 촬영본은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계종 문화부는 연중 사업으로 ‘불교문화 지적재산권 보

사찰 및 문화재 촬영하고도

관련 영상 2차 창작물 분류
정작 사찰은 사용 못하기도

종단 표준 계약서 마련 등
재산권 보호 사업 진행 중
중도 인식 개선·동참 필요

호 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문화부는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를 접수받고 관련 계약을 맺을 때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지적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조계종 문화부장 해일 스님은 “불교계가 중심이 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불교지적재산이 활용될 경우 불교계의 뜻과는 달리 불교지적재산이 잘못 사용돼 그 의미와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불교의 지적재산 가치가 방대한 만큼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장기적으로 사찰과 종단에 중요한 경제적 수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불교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종단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흐름과 변화를 예의 주시하며 대응할 것”이라며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종도들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종일 기자



“국제 불교문화 체험 중심 역할 할 것”

진각종은 3월 10일 서울시 성북구 총인원서 진각문화국제체험관과 교육관, 총인원 주처장 등 신축을 위한 지진불사를 봉행했다. 이날 불사에는 성초 총인과 트리원장 회정 정사, 교육원장 경당 정사를 비롯해 서울교구스승들이 참석했다. 트리원장 회정 정사는 축사를 통해 “이번 지진불사는 비로자나부처님의 법음이 이 땅의 회당대중사에게 전승되고 그 법을 이어서 다시 중생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간절한 서원이 구현된 것”이라며 불사의 의미를 부여했다. 진각문화국제체험관은 국제불교기구의 교류, 연대를 통해 불교문화의 장·단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불교문화의 가치와 우수성을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홍보하는데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신축된다. 글=김주영 기자·사진제공=진각종

선지식 탄신·열반 기념사업 ‘다채’

올해도 한국불교 선지식 스님들의 탄신과 열반을 기리는 기념행사가 연중 다채롭게 열린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올해 탄신 150주년을 맞은 3.1운동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명인 용성 스님이다. 현재 스님의 기념사업은 (사) 독립운동가백용성조사기념사업회, 백용성조사유물전시관위원회, 장수 죽림정사, 정도회를 중심으로 준비 중이다.

이들은 지난 3월 1일 전북 장수 죽림정사에서 3·1절 기념법회로 용성 스님 기념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5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학술심포지엄을 열어 스님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탄신일인 6월 5일에는 죽림정사에서 기념식을 봉행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만해 한용운스님의 열반 70주년 기념사업도 진행된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이하 민주본)는 오는 6월 경 북한 불교도와 함께 ‘만해스님의 사상과 업적, 실천’을 주제로 만해스님 70주기 기념 학술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본은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측과 3월 11일부터 12일까지 중국 심양에서 회의를 가졌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불련측은 만해 스님의 항일정신을 높이 사며 추모 다례제 등의 행사 필요성에 동의를 나타내기도 했다. 선학원 역시 만해 스님의 열반일인 6월 29일(양력)을 맞아 추모 다례제와 학술대회도 개최하며, 국가종교보훈처의 지원을 받아 추모 음악회를 계획 중에 있다. 만해학회는 오는 8월 ‘만해와 심우장, 근대지성과의 교류’라는 주제로 제14회 학술세미나를 열어 만해스님의 인적 네트워크를 학술적으로 조명한다. 정화 불사의 주역이자 종단 최초 복지법인을 설립했던 근현대 선지

식 월하 스님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들도 눈길을 끈다. 노천문도회(회장 성파)는 오는 3월 25일 오전 10시 ‘탄신 100주년추모다례제’를 영축총림 통도사 보광전에서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는 월하 스님의 일대기를 소설화한 <영축산에 달 뜨거든>도 봉정된다. 월하 스님의 일대기를 소설 형식으로 재조명한 <영축산에 달 뜨거든>은 ‘고승열전’ 작가인 윤정광 씨가 썼다.

법회 이후인 오후 2시부터는 월하 스님의 수행과 포교, 복지 활동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세미나가 통도사 해장보각(도서관)에서 열린다. <2면에서 계속> 신종일 기자

월하 스님 탄신 100주년 문도회, 25일 세미나·법회
송산 스님 열반 10주년 오는 10월 세계일화대회

남북불교 봉축 합동법회 열리나

민추본·조불련, 11~12일 회의... 협의안 긍정 검토

부처님오신날 남북 봉축 합동법회가 북한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이하 민주본, 본부장 지홍)는 지난 3월 11, 12일 양일간 중국 심양에서 조선 불교도련맹 중앙위원회(이하 조불련, 위원장 강수련)와 남북불교교류 실무회담을 개최했다.

이날 민주본은 봉축 남북합동법회 등법회를 평양 광범사와 금강산 신계사에서 봉행할 것을 조불련 측에 제안했다. 양측은 향후 남북관계 상황을 살펴가며 이에 관한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양일간의 회담에서 남북은 북한 불교문화재 보존보수사업을 위한 금강산 신계사 시설점검과 민해스님 열반 70주기 남북공동학술토론회 봉행 등에 관해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북한 어린이 영양개선 지원사업

과 관련해서도 조불련측은 긍정의 뜻을 나타냈다. 북한 어린이에게 영양식과 의약품을 지원하는 캠페인 ‘도담도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민주본 측은 이후 조불련과 사업에 대해 협력할 예정이다.

다만 조불련은 서산대사 국가제향 복원사업의 일환인 해남 대흥사에서 4월 춘계제향 방한은 어렵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추도사를 통한 참여 가능성은 열렸다. 묘향산 보현사에서 9월 추계제향에는 민주본이 참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날 실무회담 남북대표단에는 보화 스님(총무부 사회부장), 진효 스님(민추본 사무총장) 등 4인이, 북측대표단에는 차금철(조불련 서기장), 송준일(조불련 부원), 한정철(조불련 전국신도회 부회장), 김석철(조불련 전국신도회 신도위원) 등이 참석했다. 배현진 기자

불교 최초 비구니 군승 명법 스님

국방부 14일 선발 발표
여성 군종장교로도 최초



최초의 비구니 군승이 탄생했다. 국방부는 3월 14일 비구니 명법 스님(사진)을 포함한 군승요원 10명, 후보생 4명 등 총 14명의 군종장교 선발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다. 비구니 스님의 군승파송은 불교계로 최초이며, 군종장교로서도 여성은 최초다.

1980년 태어난 명법 스님은 1999년 19세에 마곡사를 재적본사로 출가해 2000년 사미니계를 받았다. 그후 2006년 동학사 승가대학 졸업, 2010년 여산작법학교 졸업, 2014년 2월 동국대학교 불교학부를 졸업했다. 군종특별교구는 국방부가 2013년 7월 군종병과에도 여성에게 개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국비구

니회와 협의 하에 비구니 군승 파송을 추진해 왔다. 명법 스님을 비롯한 군승 14명은 군종특별교구 주관으로 1월 15일부터 8주간 부산 군수사령부 2보급단 군법당인 금연사에서 설법과 상담, 심리학 등 ‘입대 전 교육’을 이수하였다. 군종특별교구는 “비구니 스님 군승파송은 우수한 군승 자원을 통해 군포교 활성화 및 군의 정신전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군종장교들의 임명은 4월 22일 과산 육군학성군사학교에서 이뤄지며 9주 동안 군사교육과 군종병과 교육을 수료한 후 7월 1일 군종장교로 임관하게 된다. 노덕현 기자

984호 INDEX

시방세계 ‘포교사의 날’ 첫 기념법회 현장	5	종합 종립학교 발전 ‘네이밍 기부’ 이끈다 새 종책도입 ‘삼화도량’ 출범 3대 빈곤 불교계 해법은	2·3
화엄만다라	16·17	위드아시아 이사장 지원 스님	

제2회 (사)대한불교승가종 호국연무사 수계식 및 위문 대법회

매주 5,000~9,000명 이상의 대한민국 청년들이 군 생활을 시작하고 기초 군사훈련을 받는 국방의 요람 육군훈련소, 대한불교승가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3월 8일 이국 육군훈련소 군법당인 호국연무사에서 군장병들의 안전한 군생활과 건강을 기원하며 제2회 위문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날씨에 뜨거운 마음과 환한 미소로 함께해 주신 5천여 군장병과 후원해 주신 불교어머니회, 수회 동참해 주신 종도 스님들께 지면을 통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모든 군장병과 군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수회 동참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승가종 종정 월인스님
원로 원장 해공스님 원로 위원 정오스님, 성스님
총회 의장 혜문스님
총무원장 법수스님 포교원장 도안스님 재무원장 무착스님

서울총무원장 정형스님 부산총무원장 봉선스님 대전총무원장 범지스님 울산총무원장 도성스님
대구경북총무원장 지운스님 경남총무원장 월곡스님 강원총무원장 부루나스님 월인문도장 범종스님

달오정사 법산스님 성주암주지 법동스님 무량사주지 법산스님 일원사주지 보련스님 구미시거주 혁란스님
고성서래암주지 법해스님 봉불사주지 법관스님 문수사주지 문수스님 진불암주지 법전스님
총무원거주 무철스님 용암사주지 선공스님 운정사 도성스님 내원선원 월산스님 대성사 자원스님
천진사 응진스님 청명사 보련스님 관음사 보우스님 서래암 법지스님 용와사 성화스님 가야선원 혜정스님

법주스님 혜전스님 보명스님 범성스님 묘전스님 묘운스님 묘주스님
도광스님 선조스님 선견스님 선공스님 해연스님 법산스님 원명스님
원경스님 지운스님 묘운스님 묘경스님 묘덕스님 동련스님 정광스님 불자매

사단법인 대한불교승가종 총무원장 법수

충남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 사서함 76-1 호국연무사 / 전화 041)741-3734
후원계좌 : 우체국 90058-01-002522(호국연무사)